

## 요약

# 다문화청소년의 체계적·특성별 지원 위해 서울시, 전담부서 지정·종합지원대책 수립

## 서울시 다문화학생, 2015년 1만여 명 '전체 학생의 1.14%'

서울시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학생 수는 2013년 8,574명에서 2015년 11,642명으로 증가, 전체 학생 수 대비 2013년도 0.77%에서 2015년에는 1.14%로 증가하였다.

현재 초등학교에 다문화학생이 가장 많아(71.6%), 향후 중·고등학교에 다문화학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가 16,505명(행정자치부, 2014)으로, 학령기 다문화학생 수의 증가는 필연적이므로 이에 따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표 1]** 연도별 학교급별 서울시 다문화학생 수 현황(2013년~2015년)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013	6,183(1.32)*	1,160(0.55)	731(0.22)	8,574(0.77)
2014	6,987(1.53)	1,838(0.64)	1,006(0.31)	9,831(0.92)
2015	8,514(1.89)	2,049(0.78)	1,079(0.35)	11,642(1.1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각 학교급별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 수 비율을 말함

자료: 서울시 교육청, 「2015 서울교육통계로 살펴보기」, p.39

##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44%로 일반 학생보다 높아

2014학년도 서울시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자 수는 초등학교 118명, 중학교 37명, 고등학교 13명으로, 총 168명(전체 학업중단자 수의 1.35%)이다.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1.67%, 중학교 2.01%, 고등학교 0.97%, 초·중·고 1.44%로,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율인 1.16%보다 높다. 무엇보다 중학교에서의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서울시 전체 중학생

(1.04%)보다 약 2배 정도 높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49개교에 재학하는 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다문화청소년과 중도입국청소년, 교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를 면담하여,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다문화에 대한 인식 및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지원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 다문화학생 62%만 “수업이해”... 44% “최고 어려움은 학교공부”

설문조사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수업 이해 정도는 ‘거의 다 이해한다’가 61.9%이나, ‘절반만 이해한다’와 ‘약간 이해한다’는 비율도 36.2%로 나타나, 수업이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중도입국청소년은 입국 이후의 기간이 짧을수록 수업이해 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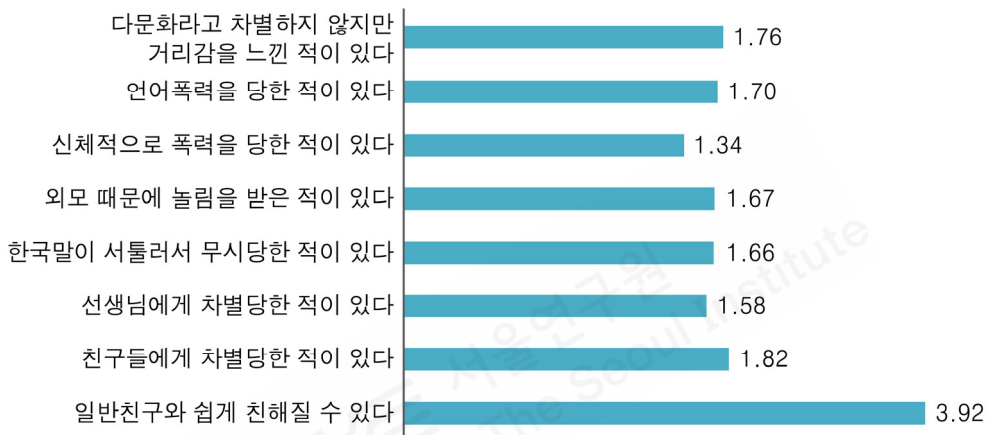
다문화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학교공부(44.1%)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교우관계(9.2%), 선생님과 관계(2.7%), 숙제(6.9%), 준비물 준비(4.2%), 학교 문화(5.4%)로 모두 10% 미만이었다. 교사 역시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교과수업(54.3%)을 가장 높게 꼽았다.

## 학업중단 고려는 중도입국 학생이 한국출생보다 1.7배 많아

학업중단을 고려해 본 다문화청소년은 14.1%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한국 출생 다문화청소년의 10.0%가 학업중단을 고려한 적이 있는 반면,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은 17.0%가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 출생 다문화청소년보다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이 1.7배 이상 학업중단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다는 것과 학업 중도탈락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 학교생활에서 언어·신체적 차별경험 적지만 세심한 관찰이 필요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일반친구와 쉽게 친해질 수 있다’는 평균 3.92점으로 나타나 교우관계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교사로부터의 언어·신체적 차별 경험은 각각 평균 1.82점, 1.58점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교차분석 결과 경제수준과 중도입국 등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심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다문화청소년의 차별 경험 인식(5점 척도)

## 19% “아르바이트 경험”... 일자리, 주로 친구·구인홈피 이용해 구해

다문화청소년의 19.1%가 아르바이트를 해보았으며, 일자리는 주로 친구(39.1%)와 구인 홈페이지(30.5%)를 통해 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57.7%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한 달 평균 36.4시간을 일하고, 평균 34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체불도 11.6%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 학교 적응은 한국어 구사력이 절대적 변수

---

면담에서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교과수업을 쫓아가는 데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친구관계에서도 소극적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도입국청소년은 학업부진의 원인을 한국어 구사능력 및 교육과정의 이질성에서 찾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어는 세상을 사는 도구이자 수업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 등 한국 적응에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문화청소년은 이주배경의 다양성만큼 계층적인 이질성도 커

---

이주배경의 다양성만이 아니라 다문화청소년 간 계층적인 이질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환경이 안정적인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은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문화’로 구분되는 것을 원치 않는 등 다문화 지원과 인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외모나 말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 다문화 담당교사 “학교 부적응, 다문화보다 비행청소년 문화 노출 탓”

---

학업중단 내지 학교부적응은 일반 청소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가 많으며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온 중도입국청소년은 이주 과정에서 어린 시기에 장기간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거나, 가족이 합쳐 살게 되어도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거리감 등 복합적인 문제로 가족해체가 많으며 이로 인해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된다.

다문화 담당교사는 부적응 다문화청소년을 다문화라는 시각으로 보기에 앞서 또래 비행청소년 문화에 노출된 결과로 해석해야 하며, 학교 적응력이 떨어질수록 나쁜 문화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한국 국적 없는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생활·사회 적응에 더 힘들어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은 주로 진로와 한국생활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보였다. 면담한 다문화청소년은 진로에 대한 계획이 아예 없거나 오히려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계획을 세우거나 진로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어를 빨리 습득하여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을 최우선 사항으로 삼는 다문화청소년이 있는 반면, 공부에 대한 흥미가 적거나 기술 중심의 직업을 선택하여 빠르게 진로를 결정짓는 다문화청소년도 있었다. 그러나 국적이거나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학생들은 신분상의 불안정으로 향후 한국 거주와 구직 또는 진학과 맞물려 고민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다문화청소년에게 국적 취득은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었으며, 교사 역시 한국 국적이 없는 다문화청소년은 학교생활과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더 힘든 것으로 파악했다. 학교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이 서툰 한국어로 국내 취업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 취득 시 자격 요건이 되는 국가자격증, 기술 직종으로의 직업훈련 및 교육을 권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종합대책 수립 시급

서울시는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에 다문화청소년 지원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조속히 다문화청소년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문화청소년,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의 지원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성별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추가 학습공간(기칭) 중도입국청소년 전환학교)을 설치하여 중단 없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언어강사의 확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및 지역기관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지원 등 한국어 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특성별 진로직업교육 지원으로 다문화청소년 및 중도입국청소년의 미래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부족

한 다문화청소년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다문화청소년이 빨리 학교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도입국자의 안정적인 한국생활과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학교 안팎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스톱지원 연계를 해나가야 한다.

